

에너지 신기술 사업모델 발굴...한전 첫 공모전

ECONOMY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최대 3000만원·CES 참가·중등 수출회 참가 지원
전문가 기술지원도...내달 12일까지 2개부문 접수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KEPCO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을 올해 처음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전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기술지주회

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전은 한전이 보유한 에너지신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유망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우수 사업모델과 사업화 주제를 발굴·지원해 기술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전은 다음달 12일까지 공

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 사례, 유망기술 활용 BM(Business Model) 콘테스트 등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자격은 우수사례 부문은 한전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경험이 있는 기업, BM 콘테스트 부문은 창업 7년 이내 중소 또는 벤처기업으로, 참여 희망 기업은 E-mail (startup@ksa.or.kr)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총

30개사를 대상으로 2개 부문별로 5개 우수기업을 선정할 후, 6월 중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최종경연으로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경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상, 한전 사장상, 한국표준협회장 및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상이 수여되고 공모 부문에 따라 CES 2026 참가, 중등지역 수출 촉진회 참가 지원, 사업화자금(1000만~30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전문 컨설팅 캠프 참여 및 기술 사

업화 패키지 지원, 전력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전문가의 기술지원,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 연계 등 다양한 특전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을 통해 에너지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유망 에너지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 신기술 사업화와 에너지 혁신 생태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전KDN, 경영혁신 공로

4년 연속 '국가산업대상' 수상

한전KDN은 최근 서울 옐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된 '2025 국가산업대상' 경영혁신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sSSIST) 등이 공동후원하는 '국가산업대상'은 우수한 경영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 제고로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전KDN은 다양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회사 경영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혁신 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영혁신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특히 국민제안 혁신 DESK, 혁신 제안 관리시스템 등 대·외부의 혁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열린 경영을 상시화해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전 '청년경력 Auditor' 모집

25일까지...5개 그룹 20명 선발

한국전력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청렴한전 구현을 위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KEPCO 청(년) 청(렴) Auditor'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기째를 맞은 '청청 Auditor'는 총 5개 그룹 20명 내외로 선발해 연말까지 한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을 제시하고 SNS를 통해 한전의 우수 청렴정책을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전은 온·오프라인 연계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가능하도록 담당부서 직원과 Auditor 그룹을 1대 1로 매칭하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중명서 발급과 함께 우수팀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2~4명이 그룹을 구성한 후 한국전력 홈페이지(home.kepco.co.kr) 공지사항에 등록된 서식을 활용해 오는 25일까지 개별(개인) 접수하면 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전 주가 '훨훨'...호실적 기대에 52주 신고가

4.12% 오른 2만5300원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올들어 30% 가까이 급등

한국전력 주가가 올해 호실적과 배당 확대 기대감에 21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전력은 전장 대비 4.12% 오른 2만5300원에 장을 마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주가는 장 초반 대비 상승폭을 키워

장중 고가로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은 16조2416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한전은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하고 정책 호재까지 기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연일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한전 주가는 개장 첫날인 1월 2일 1만9560원에서 이날 30% 가까이 올랐다. 또 외국인 자본 보유율은 15.66%(1억55만5956주)에서 17.09%(1억973만2471주)로 급등했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가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유가와 환율이 하락 안

정세다. 4~5개월 시차를 두고 한전 연료 구입비에 영향을 주는 유가는 지난해 11월 말 대비 배럴당 약 9달러(브렌트유 기준) 하락했다.

아울러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수출 기업들은 불확실성과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데 비해 한전은 대표적인 내수주이자 경기방어주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배당 매력도 높아졌다. 지난해 배당성향(16.4%)을 적용하면 현재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이 7% 이상 예상된다. 정현아 기자 aura@

농어촌공사, K-Food+ 수출상담회 '성황'

110만달러 현장계약 등 성과...7월 22~24일 추가상담회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상반기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uy Korea Food+)'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공사는 농산업 분야에 대해 110만달러(15억원) 규모의 수출을 돕는 등 수출 활성화 성과를 달성했다.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농산업 수출상담회이다. 공사는 농산업 부문을 맡아, 유럽, 중동 등 해외 구매기업 10곳을 초청하고,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상담을 연계하는 등 행사 전반을 지원했다.

특히 국내 농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예

비 교육을 시행하고, 해외 구매기업을 위한 '품목 정보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과 계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공사는 국내 농자재 기업 30곳과 함께 996만달러(141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이뤄냈으며, 110만달러(15억원)에 달하는 현장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오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내 90개 수출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60개사를 초청해 '하반기 농산업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

홍문표 aT 사장, 美 상호관세 해결책 모색

뉴욕 현지 바이어와 수출 현안 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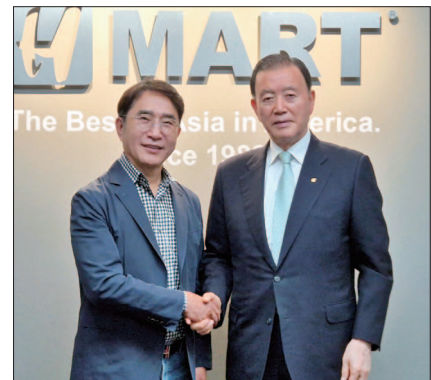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홍문표 사장이 지난 18~19일 양일간 미국 뉴욕 뉴저지를 방문, 미국과의 교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지 바이어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홍 사장은 지난 19일 미국 내 최대 한국 식품 유통망을 보유한 H마트 권일연 대표와 만나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편중된 K-푸드 판매망을 미 중남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유통채널 다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진행된 미국 동부 수입바이어 간담회에서는 최근 양국 간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했다. 바이어들은 향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중장기적 대응 방안에 관심을 표했으며, 홍 사장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외 관련정보의 신속제공과 애로해소를 위한 컨설팅 확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홍 사장은 주뉴욕총영사관과 뉴욕한인회를 방문해 미동부지역 K-푸드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를 논의했다. 또한 미국 뉴욕주 룬킵 하원의원을 만나 미국 내 K-푸드의 확산 방향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공사의 한국 농식품 미국 수출 확대 노력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받았으며, 뉴욕한인회로부터는 미주지역 K-푸



홍문표 aT 사장(오른쪽)과 H마트 권일연 대표

드 가치확산과 국가인지도 향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홍문표 사장은 “한국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애쓰고 계신 바이어분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디”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파인트리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내남동)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 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 넓고 쾌적 최신식으로 신축 고급요양원
■ 축락의사(월2회), 외부강사(월18회)
■ 상차림 및 행사 (생신 및 어버이날, 명절 등)

■ 맞춤형 전문케어(배변,배설,간호사2명,물리치료사2명,영양사21명)
■ 물리치료 기기 다수 다양, 편리하게 이용
■ 넓은 공동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아침체조(매일)

간호사 케어

신축 고급 실내 (물리치료)